

건설사 3곳과 본계약...민간공원 사업 속도 낸다

봉산·신용·마복공원 사업자 제일·산이·호반과 협약 체결 토지비 예치하면 시행자 지정 수사 대상 중앙1·2지구 포함 내달까지 10곳과 협약 마무리

을 공원으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지어 사업비로 충당하는 사업이다.

협약대로라면 제일건설(주)는 광산구 산월동 9만평가량(29만4369㎡)의 봉산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한 이후 이곳에 아파트 1200가구(최고 25층)를 짓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게 된다.

(주)산이건설은 북구 신안동 1만7000평가량(5만8619㎡)의 신용공원(운암공원) 부지 중 22%에 해당하는 면적에 아파트 2657가구(최고 23층)를 짓고 나머지 78%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한다.

호반베르디움(주)는 서구 마복동 6만 800여평(22만6150㎡)의 마복공원 부지를 사들여 아파트 999가구(최고 20층)를 짓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만들어 광주시에 기부한다.

광주시는 이들 건설사 3곳과 협약체결을 하면서 사업자 귀책 사유로 협약 해지 또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예치금(전체 토지보상금의 80%) 10%를 '물수 가능한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석연장은 우선협상자 변경으로 비리의혹에 휩싸여 수사가 진행 중인 중앙공원 1·2지구 역시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협약 체결이 추진된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제안요청서(공모지침서) 등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다수 변호사들과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광주시가 수사 대상에 오른 사업 대상자 우선협상자와의 협약 체결을 거부할 명분은 없



내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시설 해제를 앞두고 광주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한 곳인 서구 풍암동 일원의 중앙공원. 광주시는 우선협상자 변경 비리의혹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중앙공원 1·2지구 등 9개 도시공원 10개 대상지 우선협상자와 사업 협약 체결 등 사업 추진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광주시는 이번주 중 나머지 7개 대상지 가운데 중외공원,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자인 (주)한국토지신탁과 (주)한양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우선협상자들과 사업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월 중 한국토지신탁, 한양 측과 사업 협약 체결을 끝으로 9개 도시공원, 10개 대상지 우선협상자와의 협약체결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한일, 수출규제 대화 개시...갈등 해소 돌파구 열리나

외교장관 회담서 조율

한국과 일본이 내달 정상회담 개최에 공감함에 따라 얽히고설킨 갈등의 실태가 풀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 한일 갈등 현안을 해소하는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오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기자들에게 내달 말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조율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이 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일정부터 여러 사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제시하기로 했다"며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나고야관광호텔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35분간 회담을 가졌다.

우리 정부가 전날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결정하면서 조건으로 내건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에 대해서도 한일 외교장관은 수출 당국 간 대화의 개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 장관은 "어제 양측이 어렵게 합의를

통해 만들어놓은 양해 사항에 대해서 양국 수출 당국 간 대화 개시되는 게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서로 있었다"며 "우리는 협의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일 갈등의 빚이 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국 간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이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징용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문제 논의에 대해서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였다"며 "양측이 노력해나가는 부분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분위기 달라진 한일, 징용해법도 찾나... '1+1+a' 문희상案 주목

악화일로로 걷던 한일관계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를 계기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해법 찾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는 여전히 있다. 한국은 지난 6월에 제안한 이른바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방안을 토대로 해법을 찾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판결이

한일정구권협정 위반으로 '국제법 위반'이 아니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내달 정상회담 전에 해법을 찾는 것이지만 낙관하기는 힘들다.

외교부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1+1+a(알파)' 방안을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의 해법으로 주목하고 있다. 문 의장이 지난 5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 특강을 통해 밝힌 '1+1+a' 방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

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피해자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해자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문 의장의 법안에 '일본이 사죄해야 한다'는 등의 문구가 들어가면 이번엔 일본 측이 거부할 소지가 농후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문 의장의 제안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황을 낙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용섭 광주시장 지자체 최우수 행정대상

협치·노사상생 행정 공로

이용섭(사진) 광주시장의 협치행정, 노사상생 행정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자치단체 최우수 행정대상을 수상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2회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및 지자체 의정활동 평가대상' 시상식에서 지자체 최우수 행정대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대상은 한국유권자총연맹, 한국여성유권자총연합 등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것으로, 올해 12번째를 맞았다. 우수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의 행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일자리 중심



의 시장 개편 ▲협치 행정의 성공 모델인 도시철도 2호선 착공 ▲사회대타협과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타결 ▲2019년 세계수

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4차 산업혁명 명의 선도도시 기반조성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자체 주도의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사시켰으며 그 첫 사례로 국내에서 23년 만에 처음으로 자동차공장을 건립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광주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지난 1월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이끌어냈고, 자율주행 특수목적 차량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광주 대표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엔진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를 열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생태계 구축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낙후한 광주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워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기업이 찾아오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충효동 665-29)

한일솔라에너지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